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우수등급



서울아산병원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체제와

실제 이행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 4주기를 맞았다.

4주기 인증평가는 크게 기본가치체계, 환자관리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뉘어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3주기 인증과 비교해 수술장 안전관리, 통제구역 출입관리, 세탁물 관리 기준 등이 신설·강화됐다.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규정 ▲환자안전 보장활동 ▲질 향상 활동 ▲환자진료체계 ▲진료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최우수 등급인 '상'을 받으며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 받을 예정이다.

임석병 AGS실장은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재점검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GS 기준을 보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수준을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해준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간이식 8천례 달성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이 세계 최초로 간이식 8천례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아산병원은 1992년 뇌사자 간이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생체 간이식 6,658건, 뇌사자 간이식 1,342건을 실시했다(9월 말 기준). 연간 500례가 넘는 간이식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고 수술 성공률도 98%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은 ▲국내 간이식 최장기 생존자(1992년 당시 42세) ▲국내 첫 소아 생체 간이식 환자(1994년 당시 9개월) ▲국내 첫 성인 생체 간이식 환자(1997년 당시 38세) ▲세계 첫 변형우엽 간이식 환자(1999년 당시 41세) ▲세계 첫 2대1 간이식 환자(2000년 당시 49세) 모두 현재까지 건강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는 간이식의 85%는 생체 간이식으로 수술이 까다롭고 합병증도 많지만 매우 높은 생존률을 보이고 있다.

얼굴에 거대 종양 생긴 아프리카 청년, 한국에서 새 삶 찾아



입 안에 생긴 거대한 종양으로 고통받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20대 청년이 한국에서 얼굴 재건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팀이 지난 9월 16일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플란지(남, 22세)의 거대세포육아종을 제거하고 아래턱 재건 및 동·정맥 미세재건, 입술 주변 연조직 성형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거대세포육아종은 100만 명당 한 명에게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초기엔 약물로도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플란지의 경우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거대세포육아종으로 진행됐고, 종양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거대해졌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이재훈 의사(2018년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가 2021년 초 우연히 플란지를 만나 종양을 수술할 수 있는 한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고,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이 이에 응해 수술과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